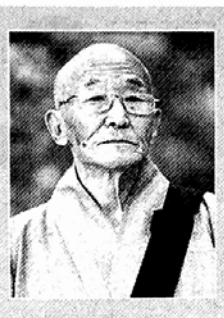
법공 스님은?

주요 강원서 20여년 강의
공부 열정 후학들에 귀감



법공스님은 성격이 다소 급하기는 하지만 자상한 성품을 지녔다.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고집으로 유명하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신도들을 잘 만나지도 않는다.

법공스님을 모시고 있는 도안사 주지 혜자스님(조계종 총무원 사서실장)은 "80이 넘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포교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면 존경심이 절로 우러난다"고 말한다. 또 "옛날에 하시던 그대로 지금도 경전을 하루도 쉬지 않고 보시는 것을 보면 그 열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는 분이라고 덧붙였다.

6년째 스님 수발을 들고 있는 도안사 보리심 보살은 "스님을 보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과묵한 성격이시긴 하지만 막상 얘기를 나누면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법공스님은 1918년 서울생으로, 35년 봉선사에서 운경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40년 서울 개운사 대원암에서 한영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49년 동국대 문리대를 졸업하고 49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65년 가평 현능사 주지를 역임했다. 64년부터 82년까지 법주사 강원을 시작으로 백양사 불국사 화엄사 청암사 강원서 강사를 지냈으며, 95년부터 도안사에 조실로 주석하고 있다.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 법공스님. 80이 넘은 지금도 수행과 포교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듯 바라밀과 공덕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하며, 엄(嚴)은 이 법을 갖춰서 알리는 것이요, 경(經)은 이러한 진리를 토대로 큰 바다처럼 중생을 포용하고 몇 천 년이 흘러도 끝이 없는 규범이 되는 것이지. 서문은 〈화엄경〉의 진리를 간결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처음 〈화엄경〉을 접했을 때 모든 만물이 성불할 수 있다는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 닿았는지, 그때의 벅찬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지."

스님은 경전 중에서도 〈화엄경〉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하셨다. 여러 경전 중에서 가장 어렵기는 하지만 〈화엄경〉을 읽지 않고서는 경전의 오묘한 이치를 터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요즘 '화엄경 현담' 읽어

"불법을 공부하는 불자들이 어떤 경전부터 읽는 것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21일간 〈화엄경〉을 설하신 다음에 12년간 〈아함경〉을 설하셨고, 그 다음 8년간은 〈방등경〉을, 21년간은 〈금강경〉을, 그 뒤 8년간 〈법화경〉을 설하셨지. 경전마다 다 특색이 있는데, 경전 공부를 하려면 〈법화경〉부터 거꾸로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렇지만 경전을 다 읽는다는 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 그게 어렵다면 〈반야심경〉만이라도 제대로 공부하는 게 좋지. 〈반야심경〉은 〈금강경〉 600부 반야를 260자로 압축해 놓은 것인데, 고(苦)도 고(苦)가 아니요, 낙(樂)도 낙(樂)이 아니요, 고가 낙이요, 낙이 고라는 중도의 이치가 담겨져 있어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조계종 교육원에서 발간한 〈강원총람〉에는 한국불교의 강맥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도표가 있다. 맨 처음 설유스님으로 시작돼 한영스님을 거쳐 운허 · 운기 · 운성 스님으로 이어져 온 강맥은

> "복이라는 것은 진리 따르다보면 자연스레 오는게지"

다시 법공 · 월운 · 지관 · 묘엄 스님 등으로 이어졌다. 웬만한 불자라면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스님들. 법공스님이 한국불교 강맥의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위상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법공스님은 운경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지만 운허스님으로부터 경을 배우고, 한영스님 밑에서 7년간 본격적인 공부를 했다. "한국불교 최고의 강백으로 꼽히는 한영스님과 운허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했다는 것만으로도 복이 터진 셈이지. 복 중에서도 인연복이 제일 아닌가. 먹고 산다는 것이 어렵던 시절에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으니 큰 복이지."

"복 말씀을 하시기에 여쭙겠습니다. 요즘 불교계에서는 기복불교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마음을 깨달아 자기 심성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기도하면서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은 옳지 않아. 장사도 투자를 해야 이득을 남기는 것인데, 하물며 복을 바라면서 자기에게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무슨 복이 오겠나. 복이라는 것은 진리를 따르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오는 게지, 달라고 해서 오는 게 아냐, 복을 지어야 오는 게지. 복 짓는 방법은 간단해, 참선하고 경 읽고 염불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 마음자리를 깨닫고 선행을 쌓는다면 그게 가장 큰 복 아닌가."

스님은 법주사, 백양사, 불국사, 화엄사 청암사 강원 등에서 20년간 강단을 지키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다. 그 가운데 스님이 말씀하시는 불국사 강원으로 가게 된 이유는 자못 재미있었다.

영월의 포교당에 있던 어느날 당시 불국사 주지 월산스님이 별안간 와서는 다짜고짜로 차에 태우더니 불국사로 데려가서는 강원에서 학인들을 가르쳐 달라고 했단다. 그래서 법공스님은 불국사가 강원을 열었던 1975년 초대강사를 지내며 3년간 이곳에서 학인들을 가르치게 됐다고 했다. 법공스님의 학문의 깊이와 열의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래, 한다고 했지. 그런데 지금은 후회스럽고 애석한 생각이 들어. 중노릇을 잘못한 게지."

강원 강단에 서서 20년간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던 법공스님이었다. 선방에서 20안거를 성만하며 쉬지 않고 정진해왔다. 근자에는 도선사에서 12년간 강설하고 법문을 하며 포교에도 열과 성을 다했다. 그런 스님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일까

"노장님을 뵐 낯이 없어." 스님은 한영스님을 이렇게 호칭했다.

"노장님 가르침을 따르지 못했어. 젊어서 좀 더 공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워. 지금은 절 밥이나 축내고 있으니 이게 어디 중이 할 짓인가. 세속에 나온 것이 잘못이지. 노장님이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는데…."

잠시 생각에 잠기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던 스님이 갑자기 웃으시며 말씀을 이으셨다.

"우리 노장님 말이야, 배를 참 좋아하셨지. 사과나 다른 것은 학인들이 훔쳐 먹어도 아무 말씀 안하셨는데, 배만 없어지면 불호령이 떨어졌거든. 공부는 참 엄하게 시키셨어. 그래서 훌륭한 강사가 많이 나왔지. 처음에 나를 가르치시더니 쓸만하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어."

한국불교 강맥의 한 위치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이치를 알만한 나이가 되면 회한에 젖어드는 것은 인지상정이리라. 법공스님도 그랬다. 지난 삶에 대한 미련은 늘 남게 마련이다. 이룬 것 보다는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클 수밖에 없다. 다만 사람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아쉬움을 채우려는 열정이 남아있느냐는 것이다.

스님은 아직도 젊은 시절 못지않은 열정이 가득했다. 80이 넘은 나이에 법문을 하고, 사찰 일을 돌보고, 아직도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에게 게으르다고 질책하고 있으니. 한국불교 강맥의 줄기에서 비중 있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끊임없는 수행의지가 아니었던들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수락산 자락에 자리 잡은 도안사의 주변 풍경은 광활하고도 아름답다. 하지만 도안사를 찾는 사람들은 그 풍경보다는 후학양성을 위해 자신을 바쳤던, 쉼 없이 탐구하고 노력하는 법공스님을 분명 기억에 담을 것이다.

글=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원욱스님의
스 님 이 야 기
경원스님

우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 깊은 잠 언저리에 술렁거림이 들어와 눈을 떴을 땐 큰방은 캄캄했다. 상반 스님들이 죽비를 들고 조심조심 큰 방의 술렁거림을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잡아가고 있었다.

옆의 도반에게 나는 졸려워 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조용히 해, 다락에 도둑이 들었어. 아까 한 30분전부터 다락에 웃장문 따는 소리가 들렸거든."

그 소리에 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우리가 자는 이 큰 방은 밖에서 보면 2층 정도의 높이인지라 그 2층에 해당하는 공간에 각각의 개인 사물함과 일년동안 대중이 먹을 쌀을 넣어두는 곳간이었다. 그 넓은 공간 안에 아쉬운 대로 탁구대가 하나 있어서 요긴하고 쓰고 있었는데 간덩이가 매우 큰 도둑께서 그 와중에 탁구를 치는 바람에 해우소 다녀오던 학인의 귀에 들려 알게 되었다고 했다.

도둑들이 우리가 깨어 난 것을 알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아직 어른 스님들께도 알리지를 못했다고 했다.

우리 모두 일어나 앉아 숨을 죽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을 때 갑자기 경원 스님이 일어났다. 그리고 2층 다락으로 통하는 문을 활짝 열었다.

배짱 두둑 결단력있는 여장부
무주상 보시 실천하는 수행자

"저기요, 아직 거기 있어요? 우리 지금 다 일어났거든요. 빨리 가세요. 들어오신데로 잘 찾아서 나가세요. 50까지 세고 올라갈 거예요. 하나, 두우울, 세에엣! 어서 빨리 가세요. 네엣!"

그 순간 우다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뛰는 소리가 나더니 조금 후에 조용해졌다. "갔지요? 스님들 올라가 봅시다."

개인 사물함 자물통들은 여지없이 다 박살이 났고 비상금들은 몽땅 털렸다. 게다가 이 배짱 좋은 도둑들은 몰래 감춰두었던 커피까지 찾아서 끓여 먹고 떠난 게 아닌가.

이 어이없는 소동으로 경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어른 스님들이 달려 오셨고 경원 스님의 행동은 당연히 어른스님들을 놀라게 했다.

"누가 도둑에게 말을 걸라고 했냐?" "스님, 저도 겁먹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잡히게 되면 일이 복잡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가지 않을까 봐 무지 걱정했어요. 죄송합니다."

경원 스님은 그렇게 배짱이 남달리 컸다. 소소한 일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다가도 무엇인가 결정을 내릴 때에는 상당히 과감하다.

스님은 내 친구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강원에서는 그런 인간관계가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았으므로 모른 척하고 지냈다. 학창시절에도 여장부 같은 기질이 있었다는 소리 들었지만 워낙 뽀얀 피부에 아주 부드럽게 생겨서 믿질 않았더니 그날 밤 도둑사건으로 스님의 진면목을 본 셈이었다.

졸업하고 난 후에 경원 스님은 대전에서 중앙불교회관을 맡아 대전시내 불자들을 위한 많은 포교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중교화에 적극 나서는 등 열심히 살고 있다는 소식을 도반들을 통해 듣고 있었다.

재작년인가 경원 스님이 근처 선방에서 결제중이라는 소리가 들리길래, 아니라고 그 스님은 지금 불교회관에서 열심히 포교하고 계시는데 무슨 선방 타령이냐고 지나쳤다.

혹시나 싶어 선방에 전화해보니 정말 그 곳에 있는 게 아닌가? 깜짝 놀라 대충 대중 공양 준비를 해서 갔더니 몹시 반가워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영락없이 십년전 그 맑디 맑던 경원 스님이었다.

왜 갑자기 떠났느냐는 질문에 아주 간단히 말했다.



"너무 오래 살았지요. 이젠 참선공부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바로 지금이 그 때인 것 같아서 법주사에 내 놓았습니다."

십여년 동안 혼자 힘으로 애써 가꾼 포교당을 후임자도 정하지 않고 대중에 내 놓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경원 스님의 노후나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건만 스님은 불사의 끝은 회향에 있다는 확신으로 자신은 자기 분상에서 제일 탁월한 선택을 한 것이라며 흐뭇해했다.

스님의 뛰어난 포교능력을 아쉬워한 캐나다의 어느 스님이 포교당 맡아주기를 권했으나 그 간곡한 청을 물리치는 것도 보았다.

경원 스님에게서 집착하지 않는 수행자, 무주상 보시 하며 떠날 줄 아는 수행자의 모습을 고스란히 읽을 수 있었다.

이번 호부터 3개월간 '스님이야기'를 연재하는 원욱스님은 59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 수덕사로 출가, 80년 수계를 받고 동학사 강원과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하였다. 불광사, 약수암 수안불교회관 등에서 어린이 지도법사를 했으며 지금은 서울 목동 반야사에 머물고 있으며 저서로는 〈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가 있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등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편두통, 신장염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정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녹 용 경 옥 고

경옥고의 효능

〈〈동의보감〉〉에 의하면 경옥고는
1) 정이 허한 것을 충전시켜 준다
2) 뇌척수와 골수를 보하여 준다
3) 인체의 모든 부족함을 보충하여 준다
4) 정신력을 충만하게 한다
5) 오장을 모두 좋게 만든다
6) 빈혈을 고치고 체력을 증진(강장)
7) 심장을 강하게 함(강심)
8) 소변을 좋게 함(이뇨)
9) 인체의 독성을 제거함(해독)
10) 피를 북돋음(보혈)
11) 신경을 안정시킴(진정)
12) 위를 튼튼히 하고 소화를 도움

녹 용 경 옥 고
50일분 고환 42만원
문의전화 02) 742-5872
016) 231-5872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 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정강 대 진 입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